

# 생활공동체로 생협 자리매김 시급

## 시작과 현재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데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생산자와 연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합이라는 형태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문화와 교육의 영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기도 한다.

70년대 이후 가톨릭 농민운동을 이끌어온 박재일 씨를 중심으로 86년에 설립된 '한살림'을 비롯, 현재 국내 생협은 2002년 말 기준 119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불교계 생협은 98년 외환 위기에 의한 경제 한파로 귀농이 사회적 대안으로 부각되자 첫 움직이 시작했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생협이 귀농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연결된다고 판단, 9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 특판에 이어 서울 용화사에 최초의 매장을 개설했다.

99년 4월 불교도농공동체운동본부준비위원회 발족과 99년 9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으로 불교 생협은 경기도 시흥에 물류창고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1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노인선원, 수원포교당, 부천 석왕사 등 7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불교생협운동본부 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됨으로써 법인체로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모습을 찾았다.

## 중요성

생협은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로 먹을거리 공동구매를 위한 지역모임 형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

과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로 묶어준다. 또한 조합원들이 민주적 공동체라는 대화의 광장을 만들 수 있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 문제점

불교생협본부는 30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99년부터 시흥 물류창고를 이용해 생협운동을 해왔지만 현재 한달 총

어려움이 따른다.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합원 수 증가가 필수다. 즉 조합원이 많아져야 대량 구입 및 소비자 가능해 배당에 따른 불투비용 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도 생협이 당면할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실상사유 기능업자목판과 남원의 남농영농조합 등 전국의 귀농 회원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 불교생활협동조합의 현주소



## 도심사찰·포교당 중심 매장 증설 계획

## 우리쌀 살리기 운동본부 조직연대 강화

는 의료 등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및 단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을 비롯해 도토리방과후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발기인이 된 '마포두레생협'도 생협의 의미를 더한다. 즉 생협의 활동 범위가 생활재의 이용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공동육아와 지역내 작은도서관 만들기, 무료법륜상담 등 공동체적인 관계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생협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친환경적인 유기농산물을 다듬어서 불교의 생명 사상을 담을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을 개발

매출액은 6천여 만 원 정도. 순수익의 8%(480만원)에서 상근 인원 3명의 인건비와 물류비용을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한살림(조합원 6만590명, 연 매출액 3백7십여 억원)과 비교할 때 아직 길은 멀다 수준이다.

생협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도 생협운동의 결실물로 작용하고 있다. 불교생협본부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쌀의 경우 20kg에 7만8천원 선이다. 일반 쌀 20kg이 4~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3~4만원 정도 비싼 가격이다. 쌀 외에 다른 품목도 일반 농산물보다 20% 정도 비싸 도시 저소득층이 구매하기에는

## 인식 부족·아직은 비싼 가격 걸림돌

## 조합원 늘려 생산-소비자 연계해야

를 소비하려면 약 1만 가구 가량의 소비자가 조직되어야 한다. 물론 불교생협본부를 통해 다 소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합원의 확대는 절실한 문제다. 개별농정이 심화돼 상당수의 농민들이 유기농생산물로 방향을 틀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

이일형 불교생협본부 사무처장은 "불교계에서 생협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불자들의 인식 부족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망

불교생협본부는 올해 매출 확대 사업으로 도심사찰이나 포교당을 중심으로 올해 2~3개 매장을 개장한다. 또 불교계 언론과 생협 운동에 대한 공동프로젝트를 선정해 생협 운동과 생명운동이 지향점을 밝히고, 사찰과 종단과의 연계를 이루는 기회로 삼을 생각이다.

월 1회 정기적 조합원 교육 실시, 연 1회 생협학교를 개최해 활동가 양성, 생산지 방문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히기 등의 교육활동도 준비 중이다. 월 1회 생협신문 발간, 7월에 시연 예정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개별회원 확충 보다는 매장형태로 운영되는 사찰별 생협준비위원회의 개별 법인화 유도를 통한 회원확대 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 근교의 토지를 임대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강원도 정선 지역에 있는 집을 활용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체험장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또 가정 '우리쌀살리기 불교운동본부'를 조직해 유기농식 확산과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순환적 전국조직화'를 통해 지역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조직강화도 구상 중에 있다.

한살림이 계획 중인 학교급식도 불교생협본부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유기농산물이 가격은 높지만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측면을 부각시켜 학부모들의 의식만 변화시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쌀라면이나 떡볶이 등 가공품 판매도 매출 신장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료 생산자보다 가공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 생협 본래의 의

미를 희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윤형근 한살림 상임연구원은 불교생협본부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 "불교생협은 사찰과 신도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일반 생협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사찰을 거점으로 하는 사찰 단위별 생협과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연계하는 지역 단위별 생협 조직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순한 건강만 먹을거리를 찾는 수준이 아니라 발우공양 정신 등 불교적 의미를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말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노귀남 불교포럼 실행위원장

## 아우에게

## 꺼져가는 북한어린이 돕기위해

## 우리 '간절한 희망'을 만들어 보자

그 해 겨울 기억나? 커서야 알았지만, 아버지가 내린 마지막 승부였다. 공장장을 돌리기 위해 셋돈마저 빼고, 우리는 공장 옆에 달아내 지는 두 칸 집으로 이사를 갔지. 얼음이 팡팡 어는 부엌이 끔찍했지. 고무장갑도 없이 설거지하는 일이라... 절없는 불행이었어.

방송에서 북한 어린이 400만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다 죽게 됐대. 그때 집이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야 추위와 싸운다는 게 실감나? 평양에는 아파트에 사는 집도 난방이 안 된대. 배관은 얼어터진 지 오래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형편이 좀 낫다는 게 집대에 비닐박막을 치고, 그 속에 온 식구가 불어서 체온으로 잠을 청한다는 거야.

지금 북한 핵문제로 온 세계가 시끄럽지. 북한에 공급하던 중유를 지난 연말에 중단했잖아. 화력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나?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며 군과 민을 동원해 곳곳에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지었다지만, 한강도 어는데 이 겨울에 발전이 되겠나? 변방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강으로 냉방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 앞이 캄캄하구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장남수 교수는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율이 방갈라데시보다 높다고 했다.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가 작성한 '2002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보고서'에서도 현재 5세 미만 어린이 1백만 명 중 23% 이상이 급성호흡기 감염증, 20% 이상이 설사병으로 고생한다는군. 95년 이후, 설사병은 30%,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25% 정도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8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우야. 가뭇가리는 그들의 눈빛을 생각해 봐. 북미 관계의 정치적 실랑이

는 그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구나. 지난해 9월 20일, 미국 부시 정권은 국가안보전략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식 무기와 핵무기 선제공격을 정당화한 조치를 했다지. 말로는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과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데, 북한이 믿으려 하겠어? 전쟁을 북한이 무서워하지. 그래서 북미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평화협정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또 남북의 휴전관계 청산은 왜 안 되는 거야. 복잡해. 53년 7월 휴전은 작전권을 가진 유엔사와 이뤄졌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은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지. 그러나 북미 평화협정이란 한반도의 군사적 역할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게 되지, 미국이 주도권을 포기하겠나?

아우야.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겠지? 고래와 명태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아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 가는데 구경만 할 수 없잖나?

아우야, 신문과 방송은 북한 아이들 아사 위기관 말에 별로 움직이지 않구나. 그래서 전자 메일에 눈을 돌린다. 톨볼시위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아 민족미래 북한아이들에게 열기와 빛을 보내는 거야. 인터넷 매체는 우리가 주인이야.

여유가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아버지 말씀 생각나? 이걸 마음이야. 북한아이 돕자고 메일로 띄워, 릴레이 메일이 되도록 이웃과 친구들에게 말해 줘. 북한 돕기 사이트를 찾아 게시판에 올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떼서 내어라. 눈물이 말라붙은 아이, 눈망울을 우리 아이들처럼 생각하며, 간절한 희망을 만들어 보자구. 너도 건강 조심하여라.

# 권 동신 전통 목공

활인천역자(活人天役者)의 오행(五行) 능력을 단번에 고쳐원으로 인도하는 육임서(六壬書)안내  
- 서주(四柱) 10년을 공부해도 육임(六壬) 3개월만 육임기의 판단능력을 떠를 수 없습니다 -

### 육임서(六壬書)안내

활인천역자의 필수서! 귀신·산소왕·부정법미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그 해소소비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비서! 이 책은 3년간 정화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할고 볼 수 있고 시간만봐서 말하는 책입니다. 넉넉한 살림이 들어있습니다.

**육임서 1권** 250,000원

**육임서 2권** 250,000원

**육임서 3권** 250,000원

**육임서 4권** 250,000원

**육임서 5권** 250,000원

**육임서 6권** 250,000원

**육임서 7권** 250,000원

**육임서 8권** 250,000원

**육임서 9권** 250,000원

**육임서 10권** 250,000원

**육임서 11권** 250,000원

**육임서 12권** 250,000원

**육임서 13권** 250,000원

**육임서 14권** 250,000원

**육임서 15권** 250,000원

**육임서 16권** 250,000원

**육임서 17권** 250,000원

**육임서 18권** 250,000원

**육임서 19권** 250,000원

**육임서 20권** 250,000원

**육임서 21권** 250,000원

**육임서 22권** 250,000원

**육임서 23권** 250,000원

**육임서 24권** 250,000원

**육임서 25권** 250,000원

**육임서 26권** 250,000원

**육임서 27권** 250,000원

**육임서 28권** 250,000원

**육임서 29권** 250,000원

**육임서 30권** 250,000원

**육임서 31권** 250,000원

**육임서 32권** 250,000원

**육임서 33권** 250,000원

**육임서 34권** 250,000원

**육임서 35권** 250,000원

**육임서 36권** 250,000원

**육임서 37권** 250,000원

**육임서 38권** 250,000원

**육임서 39권** 250,000원

**육임서 40권** 250,000원

**육임서 41권** 250,000원

**육임서 42권** 250,000원

**육임서 43권** 250,000원

**육임서 44권** 250,000원

**육임서 45권** 250,000원

**육임서 46권** 250,000원

**육임서 47권** 250,000원

**육임서 48권** 250,000원

**육임서 49권** 250,000원

**육임서 50권** 250,000원

### 주요 공사시절

직지사, 봉암사, 각화사, 대승사, 해인사(구광루,선원), 출서사, 운필암, 김용사, 법주사, 운문사, 봉녕사, 용문사, 서광사(캐나다), 한미음선원대구지원

### 찾아오시는길

↑ 추풍령IC  
동신전통목공  
1km  
← 직지사  
↓ 김천시내

▶ 사찰문 전문 ◀

대표 백영목합장

경북 김천시봉산면태화동 523번지(직지사검문소위)

전화: (054) 432-1312

공장: (054) 432-8121

휴대폰: 011-535-700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주문, 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